

LGU+, AI 중심 B2B 성장 전략... “2028년 매출 2조 목표”

중장기 성장 전략 ‘올인 AI’ 공개
익시젠 활용해 AI 서버 효율 극대화
AI 데이터센터·컨택센터 등 고도화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선도해 2028년까지 이 분야 연 매출을 2조 원까지 늘린다.

LG유플러스는 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중심의 B2B 중장기 성장 전략인 ‘올인 AI(All in AI)’를 공개했다. B2B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등 기술 혁신에 집중해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전략 핵심이다.

◆ ‘인프라·플랫폼·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AI 응용 서비스’ 고도화

인프라 부문에서 데이터센터, 온디바이스(기기 내장형) AI 등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인프라 핵심인 데이터센터 사업은 sLLM(소형언어모델) 익시젠(iki-GEN)을 활용해 AI 서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추후 개발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포함해 총 3개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용할 예정이다. 익시



2일 오전 LG유플러스 B2B 중장기 전략 ‘ALL in AI’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권용현 기업부문장.

LG유플러스

젠은 LG유플러스 통신·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경량 LLM으로,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익사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사업에서는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딥엑스와 함께 익시젠을 접목한 AI 반도체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통신장비·AICC(AI 컨택센터)·SOHO(소상공인)·로봇·모빌리티 등 LG유플러스 자체

사업뿐 아니라 LG그룹사가 보유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된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전무)은 AI 반도체에 대해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유지한 채 기존 AI 반도체 대비 상용화 시간을 단축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부문에서도 익시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플랫폼 사업에서 익시젠을 활용해 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sLLM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 연내 금융·교육·보안 등에 특화된 ‘익시젠’ 개발

LG유플러스는 연내 금융·교육·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sLLM 익시젠을 개발한다. 기업 고객이 sLLM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수를 88억 개, 250억 개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 사업에서는 고객사업종별로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AI가 다시 학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고객사가 스스로 AI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개발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한다. 이를 위해 ▲AI 서비스를 자체 제작·관리하는 익시 솔루션 ▲데이터 품질을 최적화해 관리하는 U+데이터 레이크 ▲AI 개발 학습을 자동화하는 MLOps(머신러닝작업) 바이올렛 등 AX 플랫폼 3종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와 AI 기반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릭스, 딥엑스와 아마존웹서비스(AWS), 카이스트 등과 협력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권 전무는 “All in AI 전략은 LG유플러스의 전사적 역량을 AI에 결집하고,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올해 AI 중심의 B2B 전략으로 고객의 성장을 이끄는 AI 사업자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metroseoul.co.kr

LG엔솔, 전기차용 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

르노와 내년부터 5년간 39GWh 계약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 적용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첫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르노(Renault)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Ampere)’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르노 본사에서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공급기간은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며 전체 공급 규모는 약 39GWh(기가와트시)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르노형 LFP 배터리는 파우치 배터리 최초로 셀투팩(Cell To Pack, CTP) 공정 솔루션을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LFP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철과 인산을 사용하고, 안정적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르노 본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르노가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인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기를 앞두고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LFP배터리 수주는 글로벌 자동차 3대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중국 기업의 주력 제품군을 뚫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전기차용 LFP 시장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T, 위성 탑재 양자암호 기술개발 박차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 수주

SK텔레콤은 향후 무선과 위성통신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를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맡게 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

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위성 탑재형(向)장거리 무선 QKD(양자암호키분배) 시스템 개발’로, 지난 4월 과제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과 양자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 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IL), 경희대학교가 참여한다.

5년간 진행되는 이번 국책 과제는 고성능 QKD 구현 기술, 광집적화 기술, 적응 광학 기술, 무선 레이저 통신 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을 융합해 지상은 물론, 위성 탑재까지 가능한 30km급 장거리 무선 QKD 시스템의 개발이 최종 목표다.

이 밖에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초고속 양자난수생성기(QRNG), 고성능 소형 단일광자검출기(SPAD), 신규 QKD 프로토콜 구현 등 QKD와 관련된 다양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김서현 기자 seoh@

KT, 유·무선 고객 위한 장기혜택 개편

OTT 할인·데이터 추가 등 선배

KT는 다음 달 1일부터 장기고객 혜택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혜택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무선서비스와 인터넷, TV 상품 등 유선서비스의 이용 기간을 모두 합쳐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무선 고객 위주로 제공하던 장기혜택을 인터넷과 TV를 이용하는 유선 고객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통화 추가 등

기존 통신 혜택은 물론 OTT 할인과 유·무선 부가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강화된 혜택들을 선보인다.

이번 새로운 장기혜택은 무선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TV 이용 기간도 각각 합산해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 기간 합산 5년부터 장기혜택 쿠폰을 매년 6장을 제공하고, 10년은 8장, 20년은 10장씩 제공해 기존의 최대 6장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하이브IM ‘캐치라이브’ 업데이트

하이브IM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인용 모드 게임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하이브의 게임 부문 자회사인 하이브IM은 모바일 리듬게임 ‘리듬하이브’에서 신규 모드 ‘캐치라이브’를 업데이트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브IM에 따르면 ‘캐치라이브’는 실시간매칭을 통해 최대 8인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인용 모드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기본라이브와 함께 친구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라이브 기능도 도입됐다.

아울러 게임을 통해 얻은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레슨 시스템도 추가됐다. 녹음, 안무, 촬영, 무대 등 다양한 항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메타빌드 ‘연계통합미들웨어’ 디지털서비스 등록

메타빌드가연계통합미들웨어(MESIM gSaaS)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SaaS)로 등록되었다고 1일 밝혔다.

연계SW로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서비스 SaaS로 인정받은 사례로, 지난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CSAP SaaS 표준등급’을 획득했다.

설치형 연계통합미들웨어(MESIM ESB)제품을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함으로써 인프라나 시스템의 유형에 제약받지 않고, 구독형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바꿨다.